Mobilty at a glance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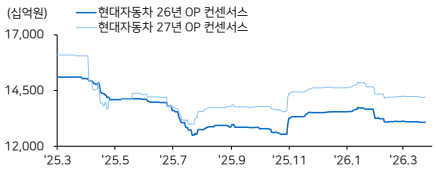
2026.3.30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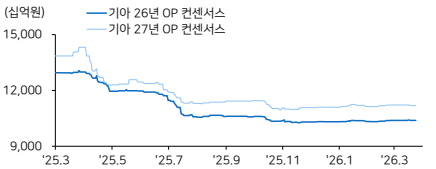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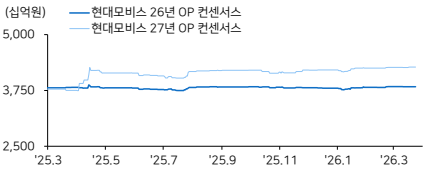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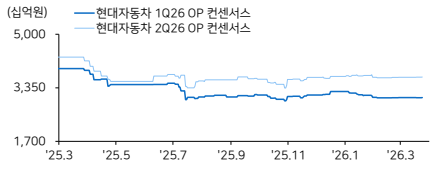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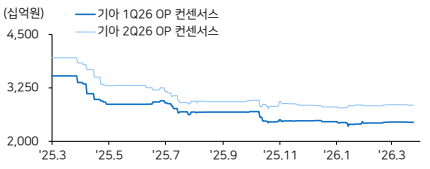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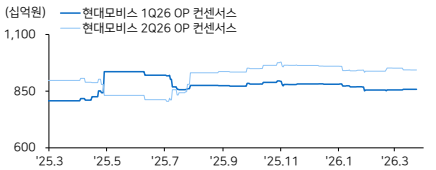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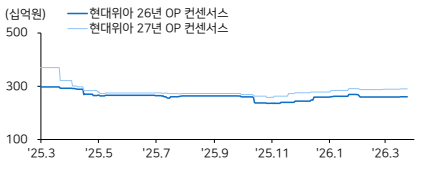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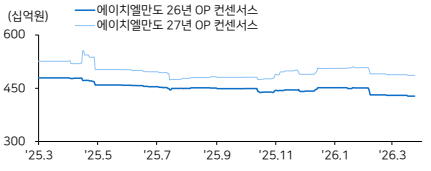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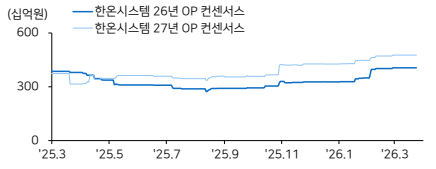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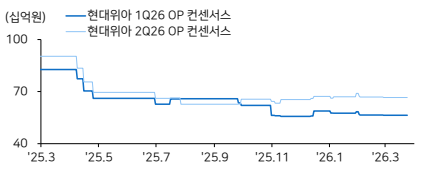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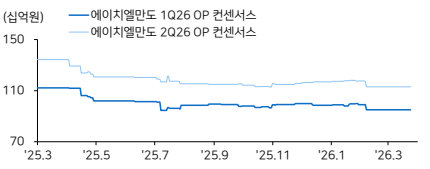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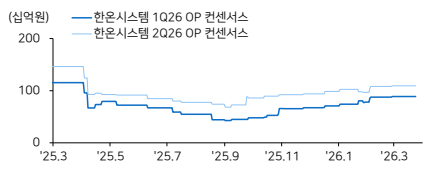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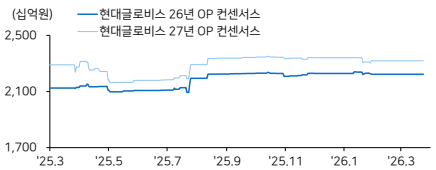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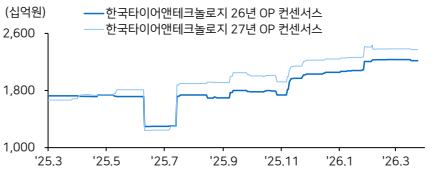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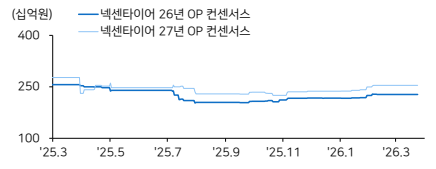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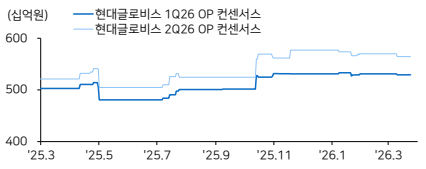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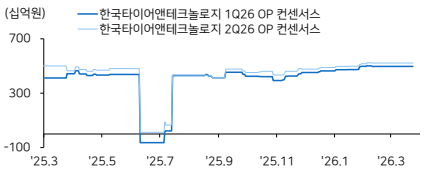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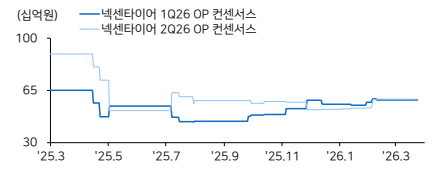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AVP본부, 박인우 사장 부임 후 첫 임원인사 단행...유지한·안형기 부사장 승진 (매일경제)

현대차 AVP본부, 유지한·안형기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임원 인사 단행. 지난달 박인우 AVP본부장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로, 대대적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기존 주요 사업을 이끌어온 두 인물이 승진했다는 점이 주목됨

https://han.gl/8YJCR

토요타 CEO "변화 없으면 생존 불가"…자동차 산업 위기감 고조 (디지털투데이)

Toyota, 자동차 산업의 위기 경고하며 생산 기준 완화 추진. 최근 공급업체 회의에서 코지 사토 CEO는 "이대로는 생존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위기의식을 표출. 기존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완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스마트 스탠다드 활동' 도입할 계획

https://han.gl/GhxyS

Xpeng changes Chinese name to signal strategic shift beyond Evs (CnEVPost)

Xpeng, 4월 1일부로 기존 중국어 사명인 '小鹏汽车'를 '小鹏集团'으로 변경할 예정(영문 사명인 'Xpeng Inc.'는 그대로 유지). 이번 사명 변경에서 '자동차' 단어를 뺀 것은 전기차 사업을 넘어선 회사의 전략적 변화를 시사

https://han.gl/vf4tD

Nio opens first Costa Rica store to kick off Latin America expansion (CnEVPost)

Nio, 코스타리카에 첫 매장을 열며 라틴아메리카 확장을 공식적으로 시작. 이곳은 Nio의 세 가지 브랜드인 Nio·Onvo·Firefly를 모두 선보이는 최초의 해외 매장으로, 코스타리카는 Nio가 3대 브랜드 전략으로 진입한 첫 번째 해외 시장이 됨

https://han.gl/pRdZz

현대위아, 인도 법인에 831억 출자…"현대차·유럽향 부품 수요 확대" (뉴시스)

현대위아, 지난 1월 인도법인에 5,500만 달러 출자하기로 결정. 현대위아 인도법인은 등속조인트를 주로 생산. 등속조인트는 내연 기관 엔진이나 전기차 모터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으로 통상적으로 완성차 생산량과 수요가 연동됨

https://han.gl/UM9ic

웨이모, 로보택시, 2년 만에 10배 성장…美 10개 도시서 주간 50만건 운행 (디지털투데이)

Waymo는 현재 10개 도시에서 주간 50만건 유료 운행을 기록하며 2년 만에 10배 성장. 웨이모 로보택시 차량은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3,067대로 알려졌으며, 향후 Zeekr '오하이'와 현대차 'Ioniq 5'에 6세대 시스템 도입할 예정

https://han.gl/gBSwW

BYD's 2025 net profit drops 19% as domestic price war bites (CnEVPost)

BYD, 중국 EV 산업의 가격 전쟁 여파로 2025년 연간 순이익 감소 기록. 순이익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326억 2,000만 위안(약 47억 2,000만 달러)를 기록. 치열한 업계 경쟁과 거시 경제적 압박 속에 전반적인 판매 모멘텀이 둔화됨

https://han.gl/fTajx

지커, 국내 출시 정보 공개…'7X' 첫 모델로 연내 출격 (ZDNet)

지커(Zeekr)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소비자 질문에 답하는 영상 콘텐츠 '지커보고있다' 공개. 국내 첫 출시 모델은 중형 SUV '7X'로 확정됐고 현재 국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

https://han.gl/2SJDT

리비안, 폭스바겐에서 10억달러 추가 투자 유치 (디지털투데이)

Rivian과 VW가 공동 개발 중인 전기차 'ID EVERY1'의 겨울 테스트가 완료되면서, VW가 Rivian에 10억 달러 추가 투자. 이미 30억 달러 이상 투자했으며, 이번 협력은 총 58억 달러 규모로 Rivian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

https://han.gl/pFOuM

German automakers to benefit from tariff-free access to Australia (Automotive News)

EU와 호주 간 새롭게 체결된 무역 협정으로 EU산 차량에 부과되던 5%의 수입 관세가 폐지됨. 이에 따라, 아시아 경쟁사들이 이미 무관세 혜택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BMW, VW 등 유럽 업체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https://han.gl/mQKJL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